

# 입이 '딱' 벌어지는 자동차 ... 육조·배구코트·헬기 착륙 공간까지



▲ 배트모빌 모형을 들고 있는 베이 오버그. 사진=X(GWR)

'뭔가에 꽃혔다' 고 말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

'디저털타임즈'는 최근 영국 대중지 더 선을 인용해 그 어떤 이와의 비교도 거부하는 여든 살의 '자동차 집착남' 미국 베이 오버그(Jay Ohrberg) 씨의 자동차를 소개했다. 그는 50년 이상 자동차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에

매달리고 있다. 엑스(엑 트위터), 유튜브 등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는 오버그씨의 명품 차량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다.

맞춤형 자동차 제작자인 그는 버려진 차들로 그만의 걸작들을 만들어냈다. 버스만큼 넓은 와이드 차량에 배구 코트가 설치된 차도 그의 작품이다. 그 위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이 배구를 하기도 했다.

남들이 보기에 입이 딱 벌어지는, 상상도 못한 차를 만들지만 출발은 썩어가는 폐차였다. 폐차장에 있을 법한 차들을 가져다가 그는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었다. 버스보다 차체가 긴 기타 모양의 '기타 차'도 그의 아심작이었다. 그가 만든 영화 같은 차량들은 블록버스터 영화에 등장하기도 했다. 나를 사랑한 스파이(1977)에 나온 제임스 본드의 차량부터 배트맨이 탄 수십 대의 자동차, 고스트버스터즈의 앰블런스, 핑크팬더 차량 등이다.



▲ ① 33미터 길이의 리무진 '아메리칸 드림'. ② 리무진 내부 모습. ③ 리무진 위로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사진=X(GWR)



▲ ① 두 개의 육조의 양변기로 만든 첫 번째 차량. ② 배구 코트가 설치된 차량에서 여성들이 배구를 하고 있다. ③ 캐논 필름 카메라 모양의 차량. ④ 빨간 육조가 올라가 있는 '메가리모'. 사진=X(GWR)

그는 1970년대에 트럭 운전사로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차를 대형 모터쇼에 실어 나르면서 영감을 받아서 자신만의 엉뚱한 차를 만들기 시작했다. 첫 번째 차의 컨셉은 '육조' 이었다. 1.4미터 정도 길이의 육조 두 개를 크라이슬러 모터 위에 올리고 운전석은 양변기로 만들었다. 그는 "차량에 금색 칠을 했는데 차 전시행사에 참석한 이들이 열광했다" 고 말했다.

대표 작품 중 하나는 33미터 길이에 75명이 탈 수 있는 리무진 '아메리칸 드림' 이다. 골프 퍼팅 그린, 수영풀 등이 갖추어진 리무진이었다. 바퀴는 26개에 달했다. 1986년 만들어진 이 차는 지구상에서 가장 긴 차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다. 리무진 위에는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다.

1989년에는 워너 브라더스의 배트맨 리턴즈(1989)에 등장하는 배트모빌을 만들었다. 촬영과 전국 공원에 전시하기 위해 총 18대의 배트모빌을 제작했다. 캐논 필름 카메라 모양의 빨간색 차는 멀리서 보면 진짜 카메라로 착각할 정도였다. 분홍색의 긴 차체에 하트 모양의 빨간 육조가 올라가 있는 '메가리모'도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제 80대로 접어들었지만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헬리콥터 착륙장과 수영장을 갖춘 34미터 길이의 몰스로이스를 만들고 있다. 또 스폰지밥 자동차를 만들 예정이다. 그는 대형 전시관을 만들어서 자신이 만든 엉뚱한 창작물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Kyung Sook Yu, D.D.S

스페셜 교정치료!

\$3000 부터 (무료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크라운 (PFM) \$6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Free 임플란트 상담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